

프로젝트 제목, 팀 번호, 팀 구성원 소개

표정 하루로 남기는 오늘, 오늘 : 하루

9조

[컴퓨터 비전] 김연지, 김재혁 (20210449, 20201792)

[프론트엔드] 이정인 (20241850)

[디자인] 신희진 (20201539)

[백엔드] 송하준 (20251725)

기존 서비스 문제 제기

현대인의 일상 기록 방식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일기 및 감정 기록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매일 일정 분량의 텍스트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이는 기록을 '습관'이 아닌 '과제'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 결과 사용자는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기록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과 피로감이 누적되어 기록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감정 상태를 글로 정리하는 행위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인지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자기표현 방식은 텍스트 중심에서 점차 벗어나 이미지, 숏폼 영상, 이모지 등 시각적 매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은 긴 문장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기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 현재의 상태와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기존의 기록 도구들은 이러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기록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글을 써야 하는 기록'이라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기록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간극을 경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일 일기를 쓰기는 귀찮지만, 오늘의 나는 어땠는지는 남기고 싶다"는 잠재적 니즈가 분명히 존재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하루를 정제된 문장으로 회고하기보다는, 그날의 표정과 분위기만이라도 가볍게 저장하고, 나중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즉, 기록의 깊이보다는 기록의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 행위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정 기록 방식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앱을 실행해 카메라를 통해 셀피를 촬영하기만 하면 되며,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AI가 사진 속 표정을 분석하여 '기쁨', '평온', '피곤' 등과 같은 감정 상태를 자동으로 태깅한다. 촬영된 사진과 함께 감정, 날짜, 시간 등은 하나의 로그로 통합 저장되어,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상의 흔적이 축적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 달력을 구성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과거의 자신의 표정과 감정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간 및 월간 단위의 감정 분포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다. 여기에 더해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부담 없는 한 줄 코멘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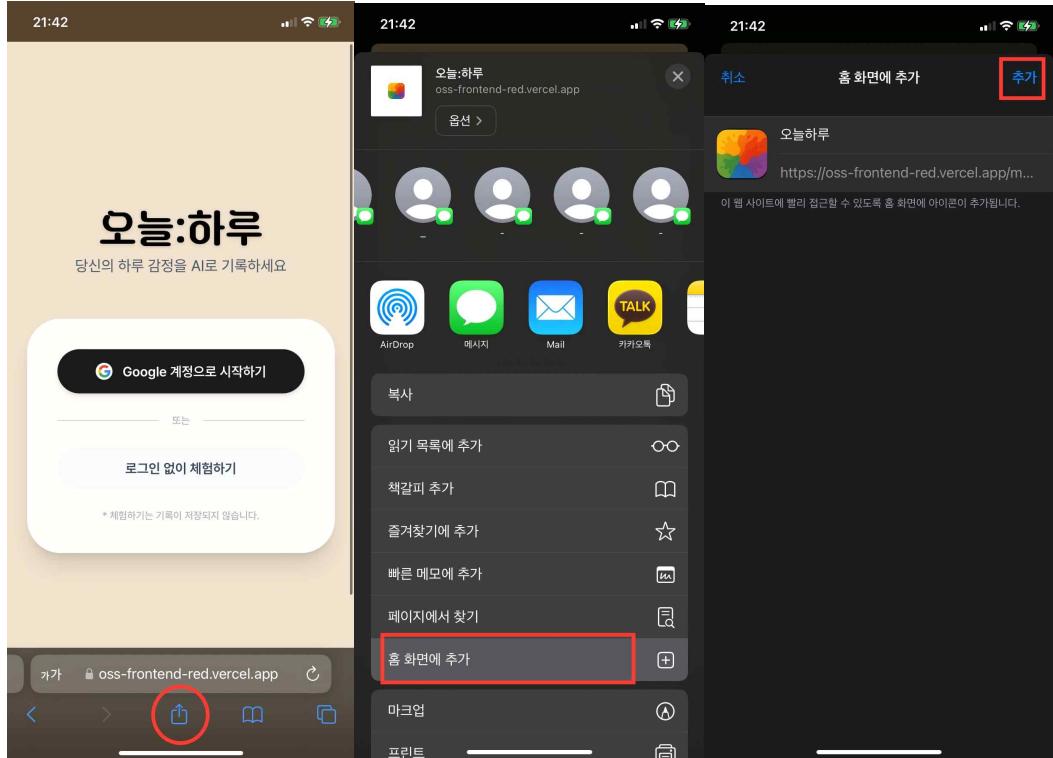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본 서비스는 '기록은 해야 하지만 어렵다'는 기존의 문제를 '찍는 순간 기록이 완성되는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정 기록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텍스트 중심 기록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자기표현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감정 기록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구현된 프로젝트의 풀버전 GUI와 상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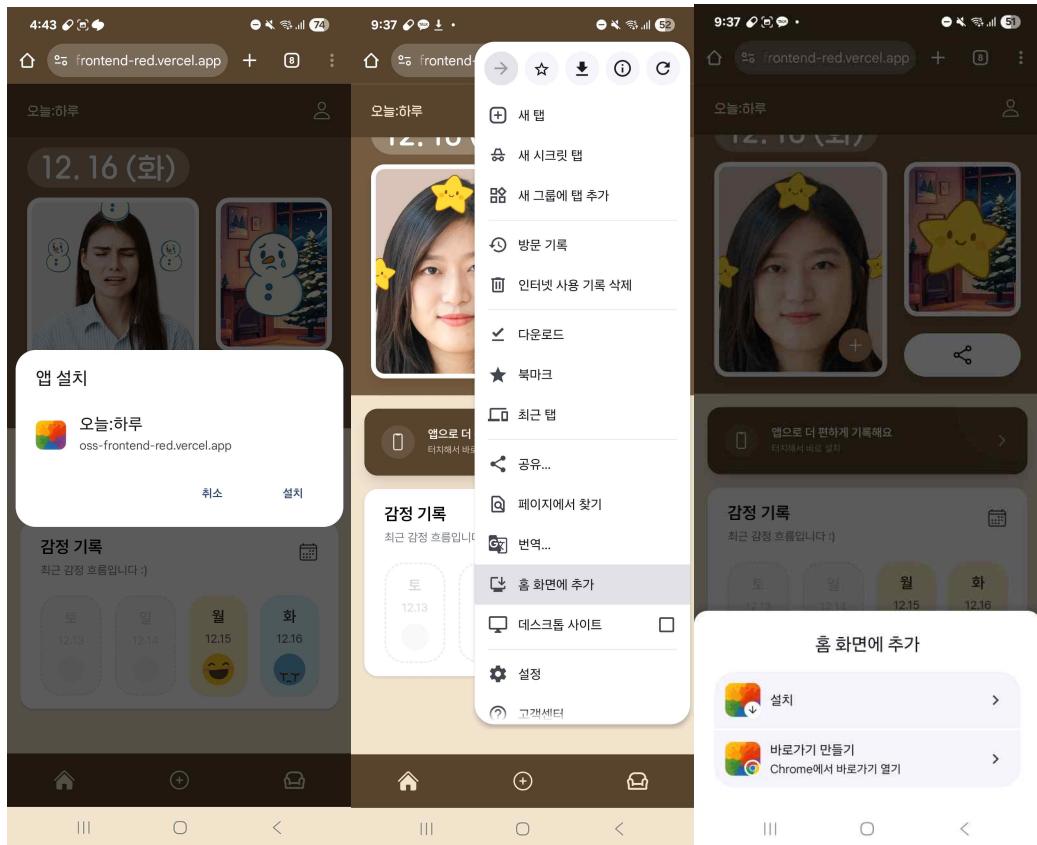
[설치 방법]

본 서비스는 별도의 스토어 다운로드 과정 없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WA 기반의 '홈 화면 추가(설치)' 기능을 지원하며, OS별 상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iOS (iPhone): Safari 브라우저 하단의 [공유] 버튼 내 '홈 화면에 추가' 기능을 통해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을 지원한다.



2. Android: 웹사이트 접속 시 활성화되는 [앱 설치] 배너(프롬프트) -> 메인화면 중간의 배너 -> [홈화면에 추가] 버튼을 터치하여 즉각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홍보 사이트로 진입해 메인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혹은 메인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홍보 사이트 :

<https://oss-team9.github.io/OSS-Design/>

메인 사이트 :

<https://oss-frontend-red.vercel.app/>

[감정 분류]

기능은 크게 감정인식/감정 아카이브/무드 라운지로 나뉜다.

감정은 총 7가지이며 각 감정에 해당되는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감정의 깊이에 따라 각 종류마다 3단계식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감정	1단계	2단계	3단계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슬픔	우울	비통	절망
당황	난감	당혹	놀람
분노	불만	화남	격노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
중립	무기력	무표정	평온
상처	서운함	외로움	배신감

[로그인 화면]

오늘:하루

당신의 하루 감정을 AI로 기록하세요



Google 계정으로 계속하기

또는

로그인 없이 체험하기

* 체험하기는 기록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로그인 없이 체험할 수 있다.

로그인 없이 체험 시 감정 인식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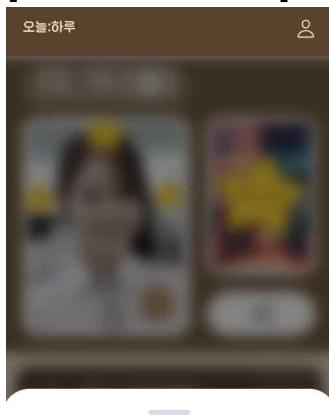
1.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

[메인 흘]



메인 홈 화면은 다음과 같다. 좌측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홈 화면이며, 오늘 사진을 남기면 인식된 감정으로 꾸며진 사진, 감정 캐릭터가 우측처럼 표시된다. 또한 인식된 오늘의 감정이 감정 기록 안에 채워진다. 감정 기록 우측에 있는 달력 이모지를 통해 감정 아카이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메인 홈 - 로그아웃]



내 정보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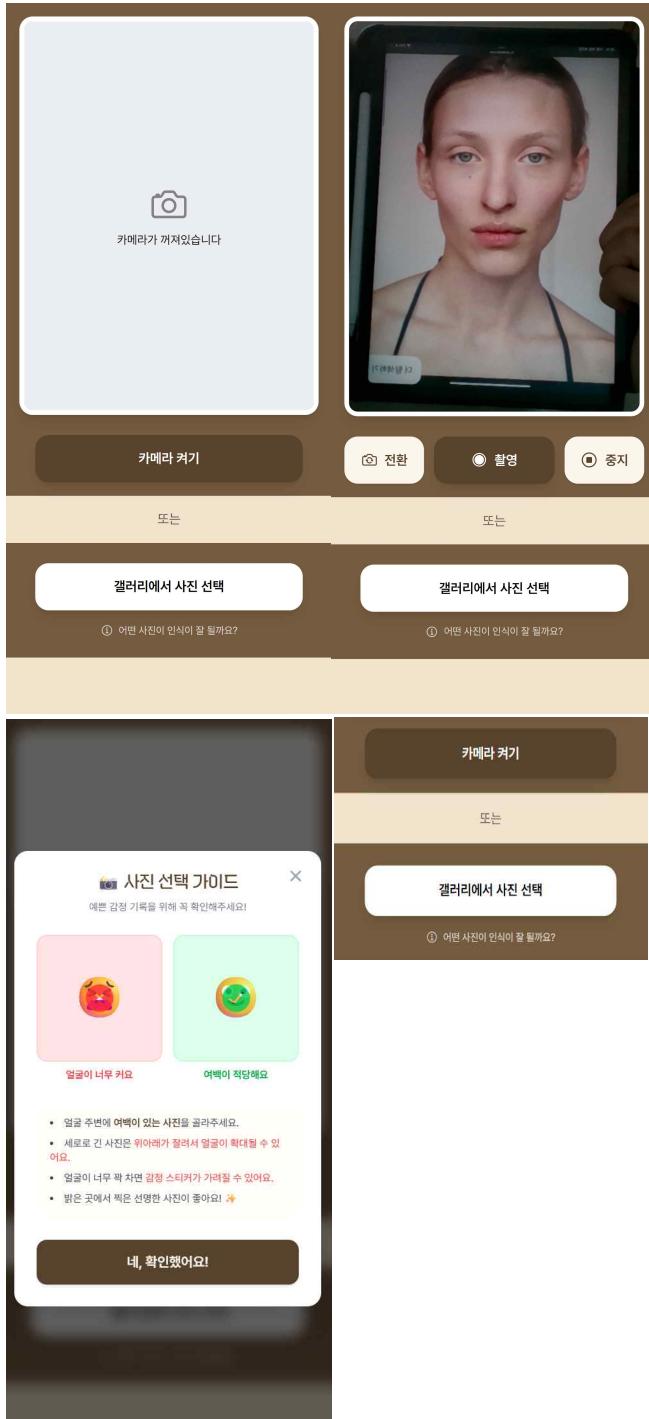


로그인된 사용자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홈화면 우측 상단 사람 이모지를 누르면 로그아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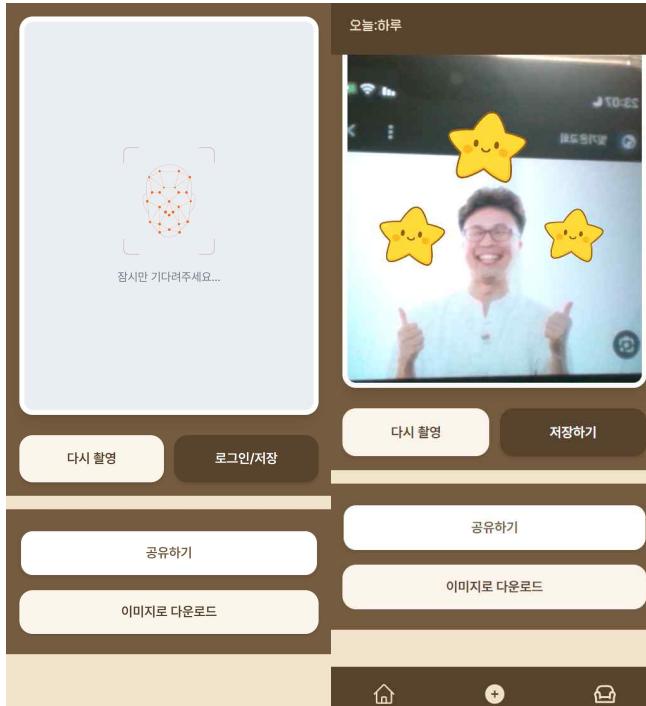
[감정 인식 - 촬영]



홈 화면의 + 버튼이나, 하단 네비게이션 바의 +를 통해 촬영을 할 수 있다. 감정을 촬영할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환 버튼을 통해 후면, 전면 카메라 중 1개 선택해 촬영 가능하다. 촬영 버튼을 통해 사진을 찍으면 감정이 인식되며, 중지 버튼을 통해 촬영을 중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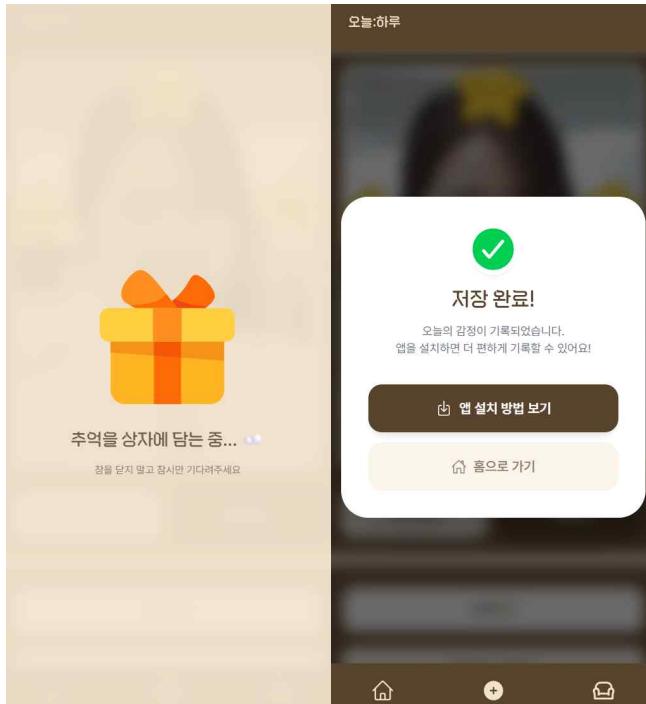
인물 얼굴이 크면 감정 캐릭터 적용 시 깨지는 오류가 발생해, 갤러리에서 사진 선택 버튼 하단에 사진 선택 가이드를 추가하였다. '네. 확인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촬영 페이지로 돌아가게 된다.

[감정 인식 - 인식 완료]



감정이 인식되면 감정 캐릭터로 꾸며져 사진이 출력된다. 다시 촬영 버튼을 통해 재촬영이 가능하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오늘 감정으로 저장된다.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미지로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꾸며진 출력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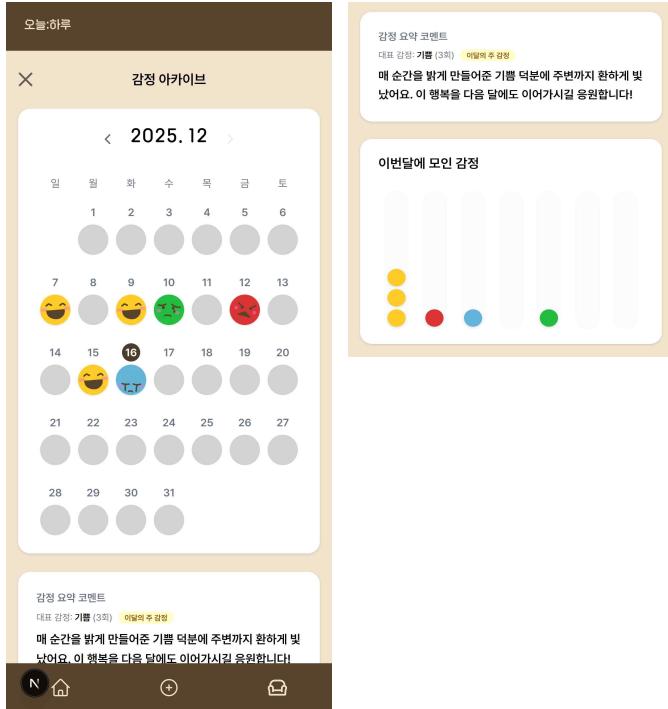
[감정인식 - 저장]



감정 인식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추억을 상자에 담는 중이라는 로딩 페이지가 나오며 DB에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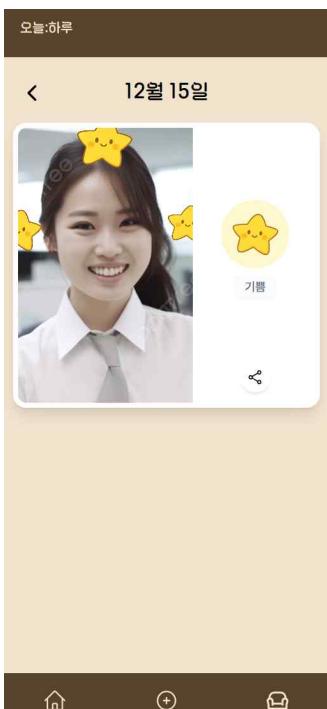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과 함께 홈 페이지로 가는 버튼과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버튼이 나오게 된다.

[감정 아카이브]



감정 아카이브 페이지는 홈 화면의 감정 기록 영역에서 달력 버튼을 눌러 이동할 수 있다. 감정을 찍지 않은 날은 회색 원으로 표시된다. 감정을 찍은 날은 달력 회색 영역에 감정 이모티콘이 채워지게 된다. 스크롤을 통해 이번 달에 대한 감정 요약 코멘트와 모인 감정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감정 아카이브 - 날짜 선택 시]



달력 창에서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보이는 페이지이다. 좌측엔 인식된 감정으로 꾸며진 출력 사진이 표시된다. 우측엔 인식된 감정과 캐릭터가 표시된다. 우측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무드 라운지 페이지는 하단 내비게이션바의 오른쪽 소파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꾸며져 있지 않은 집을 수집한 감정 캐릭터들로 꾸밀 수 있는 페이지이다. 감정 캐릭터를 모을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달아주기/트리에 불빛 장식 달기/트리 밑에 선물 박스 놓기/눈 내리는 창문/핫초코 놓기/촛불 놓기/벽난로에 불 피

우기의 7가지 인터랙션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거실을 꾸밀 수 있다. 각 감정에 대한 인터랙션은 감정 캐릭터 개수를 몇 개 모았느냐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그려진다.

[무드 라운지 - 감정 컬렉션 확인]



하단 네비게이션 바 위에 있는 화살표 표시를 통해 감정 컬렉션 창을 열 수 있다. 이때까지 모은 감정 캐릭터들이 표시되며, 전체 감정 캐릭터(21가지) 중 몇 가지를 수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감정 캐릭터 하나를 누르면 거실 이미지 정 중앙에 캐릭터가 그려지게 된다. 이 캐릭터를 클릭시 scale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무드 라운지 텍스트 우측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 캐릭터로 꾸며진 거실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고,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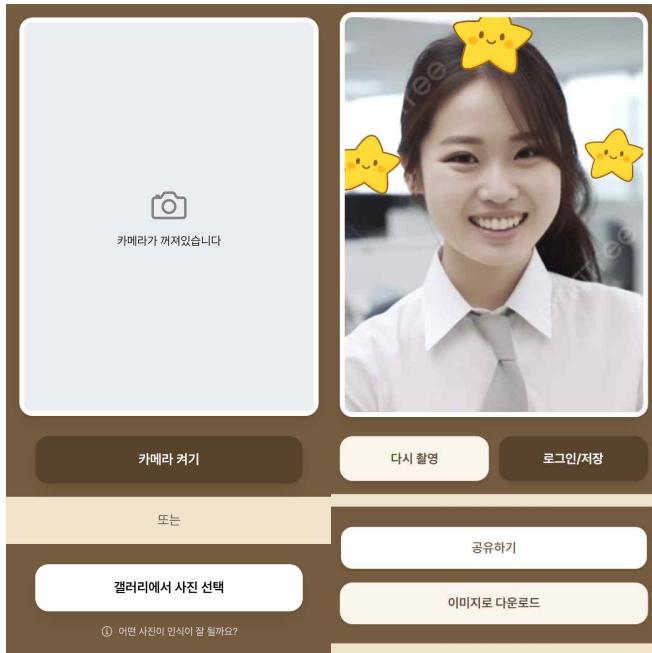
[감정 도감]



무드 라운지 페이지의 우측 상단 책 이모지를 통해 감정 도감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총 7가지 감정, 각 감정 당 세부 감정 3개를 포함해 총 21가지 감정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사용자는 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정 도감 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감정 캐릭터를 모으지 못한 경우 회색 물음표 이모지로 보이게 된다.

2. 로그인 없이 체험만 진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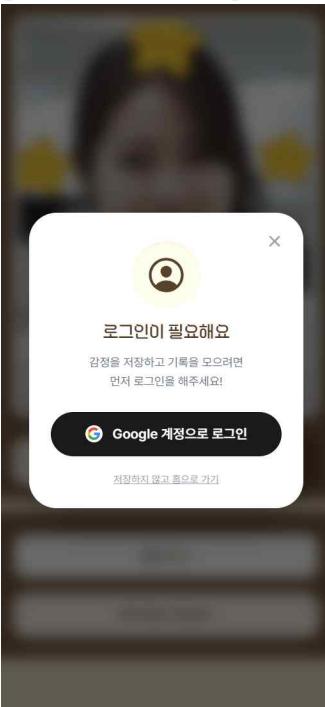
[감정인식]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감정 인식 페이지만 보이게 된다. 사용법은 로그인을 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카메라 켜기 버튼을 눌러 촬영 가능하고 갤러리에서 사진 선택 버

튼을 통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

[감정인식 – 저장]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팝업창을 띄어 로그인을 유도한다.

기대 효과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대 효과는 감정 기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감정 기록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고 문장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기록 행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비해 본 서비스는 사진 촬영이라는 단일 행위만으로 감정 인식과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사용자가 감정 기록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앱을 실행하고 표정을 촬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입력이나 사고 정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간결한 사용 흐름은 감정 기록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매일 기록하기'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본 서비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시간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정 기록 경험을 더욱 친숙하고 감성적인 놀이 경험으로 확장한다.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기이자,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 오르는 계절이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계절적 분위기 속에서 사용자의 감정을 캐릭터와 오브제 중심의 시각적 요소로 표현함으로써, 감정 기록을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사용자는 자신의 감정이 크리스마스 공간 안에 하나씩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기록 행위 자체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총 21가지 감정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와, 캐릭터 수집 개수에 따라 크리스마스 장식이 발전하는 인터랙션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기록 행위를 '과제'가 아닌 수집 및 꾸미기라는 '재미있는 목표'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률과 사용자 이탈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진 기반 감정 인식 방식은 감정과 기억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한다. 사진은 텍스트 기록과 달리 촬영 당시의 표정, 분위기, 상황을 직관적으로 담아내며, 여기에 감정 분석 결과와 시간, 날짜 등의 메타데이터가 결합되어 하나의 정교한 감정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과거의 하루를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감정 상태를 시각적으로 다시 마주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누적된 감정 기록들은 감정 변화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의 흔적들 또한 의미 있는 기억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본 서비스는 7가지 감정을 기준으로 감정을 아카이빙하는 구조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다. 축적된 감정 기록은 특정 감정이 자주 등장하는 시점이나 감정 간의 변화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생활 리듬과 감정 상태 사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감정 아카이브는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창으로 기능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조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서비스가 축적하는 사진 기반 감정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멘탈 헬스 케어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다.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감정 로그는 개인의 정서 상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자산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피드백이나 정서적 케어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는 본 서비스가 단순한 감정 기록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사용자의 정신적 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본 서비스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감정을 기록하고 돌아보는 경험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준다. 특히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적 맥락 속에서 감정을 하나씩 모아가는 경험은 사용자가 자신의 하루와 감정을 더욱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Github URL

<https://github.com/OSS-team9>

